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6면	춤출 때 더 빛나는 우리! Let's Dance, Let's 강원	1
강원도민일보	11면	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우호협력 관계 체결	2
江原日報	21면	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우호 협력	3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 협력 협약	4
G1방송	온라인	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우호 교류 합의서 체결	5
LOCAL세계	온라인	강원도의회,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협력 합의서 체결	6
江原日報	21면	[동정]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원주)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김기홍 부의장	9
江原日報	온라인	양숙희 의원 “소양호수 둘레길, 친환경 명품길 되는데 보탬...”	10
동방일보	10면	양숙희의원,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 현장시찰	10
위클리오늘	온라인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의원, 소양호수...	11
강원도민일보	19면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군 유휴지 활용 최적"	12
강원도민일보	16면	삼척 진주배드민턴클럽 회장 이·취임식	12
江原日報	16면	군부대 해체 위기 극복 '살기 좋은 마을' 변신	13
江原日報	13면	최승천 아야진초 총동문회장 취임	13
江原日報	13면	이상철 대진초·중·고 총동문회장 취임	13
강원도민일보	01면	전 세계 시선 다시 강원도로 ... 스포츠 강국 재확인	14
강원도민일보	02면	K-팝 공연 같은 무대... 2018대회 '10분의 1' 비용으로 구...	15
강원도민일보	02면	얼음 도깨비 변신 원주·강릉 청소년들 '흥과 끼' 발산	15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정치권 "강원2024 성공, 도 위상 높아질 것" 축하 릴레이	16
강원도민일보	04면	"기록경쟁 아닌 우정 쌓는 대회, 축제처럼 즐겨주길"	16
강원도민일보	15면	강릉시민·관광객 어울려 올림픽 분위기 만끽	17
강원도민일보	17면	횡성서 올림픽 보고 '비보잉·VR체험' 즐긴다	17
江原日報	11면	"횡성서 풍성한 K-컬처 즐겨요"	18
江原日報	12면	산림청 강원2024 성공 개최 지원 산불대응 강화	18
강원도민일보	05면	폭설도 문제 없다...강릉·평창 제설작업 '완벽·신속'	19
강원도민일보	05면	개막식 이원중계방송 허술 ... 평창지역 주민 허탈	19

江原日報	10면	16만명 찾아 지역 대표 축제 위상 재확인	20
江原日報	13면	생태계 직접 영향 여부에 존폐 기로 달렸다	20
강원도민일보	09면	전국 노로바이러스 '비상' 도내 환자 전년비 2배 꺾춤	21
강원도민일보	14면	원주 기업도시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운영	21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비대면 진료 효율 높여야	22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선수단과 방문객 만족도 높이길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청소년올림픽 응원, 지역 정치권 모처럼 한목소리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수출 3년 연속 27억 달러 달성, 올해가 중요	25

강원도민일보

2024 01 22 ()

06

춤출 때 더 빛나는 우리! Let's Dance, Let's 강원

GANGWON 2024 강원도민과 함께 봄엽 K-Dancing Festival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0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원2024봄엽이 재결집, 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강원도민일보사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릉시가 후원한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세계 청소년과 함께! K-Dancing Festival'과 강원2024봄엽 및 기후변화위기 극복 캠페인이 진행, 강원2024봄엽을 고조시켰다.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린 이번 봄엽 행사는 강원2024대회 개최 이후, 강릉 도심에서 열린 첫 봄엽 행사로 개최돼 주목받았다.

대회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강릉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다만, 한때 비가 쏟아지면서 당초 준비했던 댄스공연 10여 명의 공연이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강일여고 레너스 치어리딩팀이 강원2024대회 봄엽 및 성공 개최 염원을 담아 열정적인 치어리딩을 선보이면서 행사 분위기를 이끌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일여고 레너스 치어리딩팀은 강원2024대회를 향한 열정을 담은 치어리딩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진중오 강원2024대회 조직위원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이 참석해 강원2024 성공 개최 및 봄엽 확산 전면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대회 개최 이후 첫 주말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 김홍규 강릉시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월화거리를 일찌감치 찾아 시민들에게 강원2024대회를 적극 홍보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이후, 첫 주말인 20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원도민일보는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세계 청소년과 함께! K-Dancing Festival'과 강원2024봄엽 및 기후변화위기 극복 캠페인을 개최, 강원2024대회 봄엽을 재결집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진중오 강원2024대회 조직위원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이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세계 청소년과 봄엽 재결집
- 강릉 월화거리 대회 열기 고조
- 강일여고 레너스 치어리딩팀
- 곳은 날씨에도 열정적 무대
- '나에게 올림픽이란' 캠페인
- 국내외 관광객 한마음 응원
- 기후위기 극복 카드섹션
- 미래세대 실천 다짐 눈길



강일여고 레너스 치어리딩팀이 강원2024대회 봄엽 및 성공 개최 염원을 담아 열정적인 치어리딩을 선보이면서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강원2024대회는 예산이 평창올림픽 때의 10분의 1이 안되는 저예산인데도, 우리 젊은이들의 흥겨운 축제를 만들었다"며 "이번 우리 청소년 올림픽은 우리가 몇 등을 했느냐하는 경쟁 행사가 아니다. 남은 기간 경기도 많이 봐주시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화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올림픽

은 노(NO) 노쇼, 꼭 가서 쇼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열게 됐다"며 "우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자력을 갖고 있다. 이 자력을 바탕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반

드시 성공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진중오 강원2024대회 조직위원장은 "약천후 속에서도 강일여고 레너스 치어리딩팀의 치어리딩 공연으로 봄엽행사가 너무 잘 진행됐다"며 "어제(19일)를 시작으로 올림픽이 개막됐다. 앞으로 2주간 계속 올림픽 경기가 치러질 텐

데 올림픽 경기 보시면서 선수들에게 큰 응원 부탁드린다. 우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함께 바라겠다"고 했다.

주최 측인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올림픽 봄엽 행사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는데, 날씨 관계로 축소 진행돼 너무 아쉽다"면서 "강원도민일보지만, 강원도민일보 TV를 통해 오늘봄엽행사의 의미를 잘 전달하겠다. 강원2024대회가 세계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강원도의 K-팝, K-푸드, K-커피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의미 깊은 행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본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원2024봄엽 캠페인 '나에게 청소년올림픽이란'이 진행되면서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월화거리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본지 주관으로 진행된 강원2024봄엽 '나에게 청소년올림픽이란' 캠페인에 동참했다. 국내외 관광객들은 이번 대회 의미에 대해 '세계 청소년들의 꿈', '한국을 빛낼 청소년 선수들 파이팅!', '새로운 도전' 등의 메시지를 기재하며 강원2024대회 성공을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했다.

행사에선 전 인류의 공통 현안인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한 특별한 카드섹션 캠페인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위기, 우리 함께 극복!' 카드섹션 캠페인으로, 강원2024대회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연단에 오른 미래세대들은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강원2024대회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친환경 올림픽 가치를 구현하면서 이날 함께 진행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섹션 캠페인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박지은·이연재 >영상 kado.net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몽골 튜브도의회(의장 잠발수렌 쉐렌도르지)와 우호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우호협력 관계 체결

경제·무역·문화·관광 등 교류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양 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튜브도의회와 우호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방문을 추진하고, 경제·무역·예술·문화·관광 등 분야의 지방정부

및 기업 간 교류 확대 등을 약속했다.

도의회 측에선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한창수 부의장, 심오섭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위위원장, 최승순 도의원, 김종욱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튜브도 측에선, 잠발수렌 쉐렌도르지 튜브도의회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권 의장은 “양 의회 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올림픽 기간 중 방문해줘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 글로벌 시대 동반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잠발수렌 의장은 “양도 간의 교류는 20년의 역사가 있지만, 양도의회 간 교류가 많지 않아 아쉬웠다”며 “오늘의 교류 협정 체결식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 간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튜브도는 1999년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200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0여년간 교류협력사업이 이어오고 있다. 양 의회 간 협력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철화

江原日報

2024 01 22 ()

21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우호 협력

경제·예술 등 분야 교류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몽골 튜브도의회가 경제·무역·문화·예술·관광·스포츠 분야 교류를 추진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튜브도의회와 우호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장, 한창수 부의장, 심오섭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위위원장, 최승순 도의원, 김종욱 도의회 사무처장, 잠발수렌

쨌렌도르지 튜브도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의회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을 추진한다. 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력·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원자치도와 튜브도는 지난 1999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맺고 2003년 자매결연을 체결, 20여년간 교류협력사업을 해왔으나 의회 차원의 교류협약 체결은 이번이 최초다. 몽골 튜브도 대표단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도를 방문, 올림픽 성공 개최를 응원하고 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KBS 춘천

2024 01 19 ()

강원도의회,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 협력 협약



강원도의회는 오늘(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엔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과 잠발수렌 몽골 튜브도의회 의장 등 두 의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지방의회는 앞으로 경제와 무역,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추진합니다.

박성은

2024 01 19 ()

G1방송

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우호 교류 합의서 체결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몽골 튜브도의회가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합의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습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잠발수렌 몽골 튜브도의회 의장은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합의서를 체결하고,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몽골 튜브도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기간 양 지역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2024 01 21 ()

LOCAL세계

강원도의회,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협력 합의서 체결

전경해 기자



▲ 19일 권혁열 의장, 잠발수렌 의장(오른쪽)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몽골 튜브도의회 우호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서 체결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카리브3홀)에서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몽골 튜브도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응원하고,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11명의 대표단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권혁열 의장, 한창수 부의장, 심오섭 동계특위위원장, 최승순 도의원, 김종욱 의회사무처장, 잠발수렌 쉐렌도르지 튜브도의회 의장, 테무진 간볼드 비서실장, 오르길 톱신바야르 대학생연맹장 등이 참석했다.



▲ 19일 권혁열 도의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몽골 튜브도의회 우호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서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권혁열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튜브도는 1999년 우호 교류를 체결하고, 2003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20년간 다양하고 알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며 “양 의회 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우호교류 합의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권 의장은 “오늘을 계기로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고 상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9일 권혁열 의장(왼쪽)이 잠발수렌 의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튜브도 잠발수렌 의장은 “강원도민께 튜브도민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초청에 감사드립니다”며 “강원도와 튜브도는 20년 동안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강원도 농업기술 전수로 몽골의 농업기술이 향상 된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강원도의회 의장단을 초청했으나 갑작스러운 수해로 방문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 올 상반기 다시 초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잠발수렌 의장은 “몽골은 341만 인구가 500만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튜브도는 몽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양 의회 간의 협력사항이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창수 부의장은 “이번 체결식이 미래를 함께 열고 함께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의원 모두가 합의서가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19일 잠발수렌 의장(오른쪽)이 한창수 부의장(왼쪽)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심오섭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관광, 문화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튜브도와 강원도의 교류 확대를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의 발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 도의회는 우호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후 교환했다. 지난해 4월 튜브도 지사와 잠발수렌 의장이 강원도를 방문하고 9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도 참가했다.

한편 튜브도와 강원도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이 유사하다. 이들을 활용한 양 지역 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 방문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주민 생활과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Local)세계 / 전경해 기자(dejavu0057@gmail.com)

江原日報

2024 01 22 ()

21

◇김기홍강원도의회부의장



(원주)은 22일
오전 11시 원주
시 빌라드아모르
에서 열리는 원
주시사회복지협

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2024 01 21 ()

江原日報

[동정] 김기홍 부의장

김기홍(원주) 부의장은 22일 오전 11시 원주시 빌라드아모르 4층에서 열리는 원주시사회 복지협의회 제10대 회장.제11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江原日報

양숙희 의원 “소양호수 둘레길, 친환경 명품길 되는데 보탬될 것”

22일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 현장시찰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양숙희(국민의힘.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22일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양강댐 정상 청평사 구간 소양호수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시찰에 나선다.

양 의원은 “한기호 국회의원,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실무부서 관계자 등과 소양호 행정선을 활용해 소양호수 둘레길 전구간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숲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관광상품, 호수경관을 활용한 힐링 트레킹코스 개발로 친환경 명품숲길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 ESG경영과 탄소중립 정책에 걸맞는 숲길 조성으로 소양강을 한국 대표 힐링명소로 만들어 주민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춘천, 양구, 인제 등 3개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추진된다.

동방일보

양숙희의원,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 현장시찰

몽골 튜브도와 의회차원의 교류협약 최초 체결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월 22일(월), 테마형 접경거점지역(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양강댐 정상~청평사 구간 소양호수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시찰에 나선다. 양의원은 “소양호수 둘레길 조성사업은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일원에 5.9km에 걸쳐 호수둘레길, 포토존, 포

인트전망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소양호 행정선을 활용하여 둘레길이 조성되는 전구간을 2시간여에 걸쳐 직접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의원은 “이 자리에는 한기호 국회의원, 권주상 춘천시부의회, 도와 시의 실무부서 관계자, 국립춘천숲체원 숲길조성 전문가 등이 함께 할 예정”이며, “숲을 활용한 자연친화

적 관광상품 개발과 호수경관을 활용한 힐링 트레킹코스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친환경 명품숲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양의원은 “현 정부의 ESG경영과 탄소중립 정책에 걸맞는 친환경 숲길 조성과 인근 마적산을 연계한 등산코스 개발, 족욕장 및 맨발걷기길 설치 등으로 소양강을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테마형 접경거점지역(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춘천시, 양구

군, 인제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한기호 국회의원(춘천乙,국민의힘)이 확보한 총사업비 300억원(국 210, 도 28, 시군 62)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춘천시는 호수둘레길(소양강댐 정상~청평사), 가마골 생태탐방로, 소양강댐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하고 양구군은 소양호 출렁다리, 순환호수길, 하늘쉼터(전망대, 주차장 포함)와 인제군은 소양호수 산책로, 전망대, 너울길(도보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도경 기자 dongbangmedia@naver.com

2024 01 21 ()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의원,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 현장 점검

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의원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 현장점검 소양호수 둘레길, 친환경 名品길 조성 추진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월 22일 테마형 접경거점지역(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양강댐 정상~청평사 구간 소양호수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양 의원은 "소양호수 둘레길 조성사업은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일원에 5.9km에 걸쳐 호수 둘레길, 포토존, 포인트전망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소양호 행정선을 활용하여 둘레길이 조성되는 구간을 2시간여에 걸쳐 직접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한기호 국회의원, 권주상 춘천시부시장, 도와 시의 실무부서 관계자, 국립춘천숲체원 숲길조성 전문가 등이 함께 할 예정"이며, "숲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관광상품 개발과 호수경관을 활용한 힐링 트레킹코스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친환경 명품숲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또 "현 정부의 ESG경영과 탄소중립 정책에 걸맞는 친환경 숲길 조성과 인근 마적산을 연계한 등산코스 개발, 족욕장 및 맨발걷기길 설치 등으로 소양강을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전했다.

테마형 접경거점지역(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한기호 국회의원(춘천乙, 국민의힘)이 확보한 총사업비 300억원(국 210, 도 28, 시군 62)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춘천시는 호수둘레길(소양강댐 정상~청평사), 가마골 생태탐방로, 소양강댐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하고 양구군은 소양호 출렁다리, 순환호수길, 하늘쉼터(전망대, 주차장 포함)와 인제군은 소양호수 산책로, 전망대, 너울길(도보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kakao.com

36

“국제스케이트장 철원군 유휴지 활용 최적”

군 유치추진위 제안 설명회

시설·경험 등 유치 최적지 강조
9월 환경정화·시설물 철거 완료
건립 ‘신속성’ 최대 장점 꼽혀

철원군이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 접경지역군(軍)부대 유휴 시설을 활용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철원군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추진위원회는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스케이트장 유치제안 설명회를 갖고 고군(軍)부대 연병장으로 사용하던 유휴시설 활용과 수도권과의 1시간 내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 등 모든 조건들이 철원이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



철원군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제안 설명회가 최근 군청에서 이현중 군수, 박기준 추진위원장, 임대수·유종근·박용택 부위원장,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치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가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해 대상 공고를 냈에 따라 유치위는 이날 제안 설명

회를 개최했다.

철원군 오지리 일원 8만7000㎡에 달하는 군유휴부지의 시설물들이 이미 철거가 완료됐고 환경정화가 올해 9월 완료될 예정으로 바로 스피드스케이트장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신

속한 사업 추진에 있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설명회에서 군은 철원은 지난 70여년간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에 소외돼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철원군은 전국 유일의 실외 대형 스피드스케이트장을 운영, 3년째 전국대회 유치로 경험이 많고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한 열정은 타 지자체와 비교 불가하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철원군에 스케이트장을 유치하는 것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척 진주배드민턴클럽 회장 이·취임식 삼척 진주배드민턴클럽 회장 이·취임식이 21일 삼척고 체육관에서 박상수 시장과 정정순 시의장, 심영근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윤상준 회장이 취임하고 홍옥희 회장이 이임했다.

군부대 해체 위기 극복 '살기 좋은 마을' 변신

이슈현장 화천 사내면 개발 사업 추진

옛 항공대 부지 산단 조성... 군 관련 물품 업체 유치 커뮤니티센터·실버 아파트 등 보육·요양시설 건립

국방개혁 2.0으로 위기를 맞은 화천군 사내면이 위기 극복을 위한 대변신에 시동을 걸었다.

사단 해체 이후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화천군이 '사람 살기 좋은 마을'로 다시 일어서도록 사내면에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산업단지·파크골프장 조성=옛 항공대 부지에 2025~2026년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여기에 군부대 급식과 관련된 식품류와 피복류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김치, 빵과 같은 식품류 업체를 유치해 지역 생산품과 연계할 방침이다.

올해 산업단지에 들어설 15~20개 업체를 모집한다.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는 이미 확보했다.

■ 사내 커뮤니티센터 건립=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화천형 교육캠퍼스 구축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2025년까지 사내커뮤니티센터를 건립,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자녀 온종일 돌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고령자 실버 아파트,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비 223억원 규모의 60세대 실버 아파트 건립이 확정, 2027년 하반기에 준공된다.

고령자를 위한 1,000㎡ 규모의 실버복지센터도 갖춰진다. 또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치매 전담형 종합 노인요양 시설을 건립한다.

■ LPG 배관망 구축, 하수 처리능력 증대=사창리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 17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모두 1,150세대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입게 된다.

지난해 사창 정수장 능동

형 정수 시스템 설비를 완료한 데 이어 사창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주민 반응=박대현 도의원은 "군인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사내면은 군부대 의존도가 높다"며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군수는 "사내면이 사단 해체 위기 극복을 넘어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장기영기자



최승천 아아진초 총동문회장 취임 아아진초교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0일 소노캄 델피노에서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고성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제22대 박창식 회장이 이임하고 제23대 최승천 회장이 취임했다.



이상철 대진초·중·고 총동문회장 취임 대진초·중·고 총동문회장이·취임식이 지난 20일 금강산콘도 대연회장에서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고성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제8대 김용복 회장이 이임하고 제9대 이상철 회장이 취임했다.

2024 01 22 ()

강원도민일보

전 세계 시선 다시 강원도로...스포츠 강국 재확인

01

BANGWON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바흐IOC위원장 "성공적 개최식"
본지 강릉서 댄싱페스티벌 호응
설상경기장 개방 관람 용이해
폭설·한파·노쇼 우려는 여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지난 19일 개최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번, 강원도로 쏠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2024조직위원회는 내달 1일까지 이어지는 강원2024를 성공 개최, 역대 가장 성공한 올림픽으로 기록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해 대한민국의 스포츠 강국 파위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강원2024개회 이후, 첫 주말을 관통 하면서 강릉을 비롯해 평창, 정선, 횡성 등 대회 개최지 곳곳에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대단히 성공적인 개최식이었다"고 조직위를 통해 밝혔다.

본지는 대회 개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0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세계 청소년과 함께! K-Dancing Festival'과 강원2024 붐업 및 기후변화위기 극복 캠페인을 진행하며 강원2024 붐업을 고조시켰다.

이같은 붐업 열기는 구름 관중으로 이어졌다. 19일 개최식은 유료 예매 수 4673매 가운데 관객은 3495명에 달했다. 이는 개최식에 참여한 각국 선수단, 올림픽 패밀리, 기자단, 초청인사 등을 제외한 수치다. 20일 한국 첫 금메달이 나온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쇼트트랙 경기를 보러 온 관람객으로 가득했다. 쇼트트랙 관중은 경기 마감기준 최종 7524명에 달했다. 국내 비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 경기장에도 아이와 함께 온

가족단위 관람객이 좌석을 메웠다.

다만, 폭설과 한파, 노쇼(No-Show·예약부도) 우려는 강원2024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개최식 당일부터 21일까지 폭설이 이어지면서 일부 경기는 연기됐다. 루지 등 외부에서 열리는 종목은 관람객의 '노쇼'로 반쪽 경기로 남아 현장발권 등 긴급대책이 마련됐다.

조직위는 스키, 바이애슬론 등 설상 경기의 경우 예매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인기몰이에 성공한 쇼트트랙 등의 빙상경기에 대해 우선 관객 안전을 보

장하는 선에서 22일부터 20% 수준으로 추가 개방을 결정했다.

제설 대책과 관련, 도는 지난 20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확대 운영해 개회 시군과 함께 올림픽 중점관리도로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도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 개회 시·군, 조직위와 함께 올림픽 기간 대설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 가동 중이다. 도는 제설 자원(장비 953대·인력 1만 2237명)을 올림픽 중점관리도로에 투입하고, 제설제 6008t을 살포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성공적인 올림

픽 개최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 날까지 올림픽 관계자와 참가 선수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두비 IOC 수석국장은 "폭설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한국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놀랍다"고 조직위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심예섭·김덕형

▶관련기사 2·7·15·17·18·24·25·27면

2024 01 22 ()

강원도민일보

K-팝 공연 같은 무대... 2018대회 '10분의 1' 비용으로 구현

‘꿈을 향한 발랄한 도전’ 메시지
칼군무·레이저 등 접목 큰 호응
개·폐회식 65억8000만원 투입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이 지난 19일 성대히 막을 올렸다. 2018동계올림픽과 비교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호평이 쏟아졌으며 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후일담이 쏟아져 나왔다.

■ 개최식 호평

강원 2024 개최식에서 전 세계에 제시한 메시지는 꿈을 향한 발랄한 도전이다. 개최식의 문화공연은 ‘열정의 시작’, ‘우리 꿈꾸자’, ‘슈퍼 노바’, ‘우리 함께 빛나자’라는 4개의 주제였다.

책상에 앉아 교실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로 주인공인 강원도 소녀 ‘우리’가 헤드셋을 쓰자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빙기를 탄 랩퍼 듀오 Y2K92가 신나는 힙합으로 청소년의 뜨거운 열정을 표출하고 책상을 활용해 박력 넘치는 ‘칼군무’로 청소년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관객들에게 강렬하게 전달했다.

가장 주목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



지난 19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식에서 고등학생 등으로 구성된 댄스팀 탄즈 유희태

의 상징 중 하나인 교복이다. 공식 행사 후에 이어진 ‘우리 꿈꾸자’라는 공연에서는 아이스 고블린이라는 상상 속의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했다. 신성(新星)보다 1만배 이상 밝은 빛을 내는 초(超)신성인 ‘슈퍼 노바’ 무대에서 우주 비행사가 된 미래의 자신과 만나며 꿈을 현실로 이루는 장면을 연출했다.

캐나다에서 온 토마스 카르나(17) 알파인스키 선수는 “특히 레이저와 음악이 좋았다”며 “이번 대회에서 좋

은 경험을 쌓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자신의 딸인 헬리 매크리(16)의 스노보드 경기 출전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호주 국적의 여성은 “색감, 춤 등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무대를 보는 것 같았다”며 “관객들 모두가 같은 색을 내는 블루투스 응원봉도 멋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신화통신 웨이화 기자는 “한국의 K-팝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개최식”이라며 “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 2018평창올림픽 예산의 10분의 1

강원2024개·폐회식 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비교해 10분의 1 규모 수준이다. 강원2024개·폐회식 예산은 65억 8000만원 수준이다. 2018평창올림픽개·폐회식 비용(622억3000만원)과 견주 보면 10분의 1 수준이다. 강원2024는 경기장 개·보수 비용

100억원을 비롯해 조직위 운영, 인력 지원 등 총 930억원이 투입됐다. 평창올림픽(13조 8000억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 김진태 지사는 이를 두고 “개회식 행사를 평창올림픽과 비교하던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훌륭하게 치렀다”고 평가했다.

■ 김건희 여사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일인 19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강릉 일대를 순회하며 청소년올림픽 지원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아 주목을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잡버리 대회 개최식에서는 윤 대통령과 동행 참석,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김 여사가 평소 청소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올림픽 개최식 불참을 놓고 “김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등 정치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개적인 행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개최식 연설 도중,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길 바란다”며 옆에 앉아 있던 각 대표 선수들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며 셀피 촬영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설화·심애선·김덕형

강원도민일보

얼음 도깨비 변신 원주·강릉 청소년들 ‘흥과 끼’ 발산

랩터스 등 100여명 개최식 참여
“큰 무대였지만 마음껏 즐겨” 소감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였지만 마음껏 즐겼어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식에서 관객들의 눈길을 끈 ‘아이스 고블린(얼음 도깨비)’가 된 강원지역의 청소년이었다. 원주와 강릉지역 청소년 100여명이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단원들과 참신한 무대를 연출하며

저마다의 끼를 발산했다. 추운 날씨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 두꺼운 복장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텀블링과 역동적인 안무로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양정웅 총감독, 김보람 안무감독 등이 이끄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 2주 정도 강릉에서 강도 높은 연습을 거쳐 인상깊은 무대를 완성했다.

이중에서도 원주 지역의 댄스팀 ‘랩터스’는 지난해 원주댄싱카니발 개막식 무대에 오르며 이름을 알리고 있는 팀이다. 이번 퍼포먼스에는 50여명이

참가해 가장 큰 규모로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개막식 무대가 너무 즐거웠다”고 입을 모으며 더 큰 무대로 나아가겠다는 다짐했다.

김하윤(원주솔샘초5년) 학생은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안무가 선생님들과 점점 친해져서 재밌었다. 도깨비 분장을 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즐거움이 컸다”고 말했다. 김동욱(원산초5년) 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이 좋아 더 열심히 춤쳤다. 선생님께서 긴장하지 말고 ‘무대를 부숴버려라

고 했는데,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며 “얼음도깨비 분장에 땀이 흐르니까 꼭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다”며 서로 웃기도 했다”고 전했다.

송용빈(원주문막초6년) 학생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 선 것만으로도 기쁘다. 이번 무대는 정말 마음껏 즐기고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오연오(원주평원중1년) 학생은 “의상 때문에 땀이 많이 났지만 즐거웠고, 잘했다는 칭찬도 많이 들어 기쁘다”고 했다. 한세준(원주흥초6년) 학생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공연이 아닐까 한다.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들었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던 사람들

도 많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고준영 랩터스 단장의 소감도 남다르다. 고 단장은 “아이들이 올림픽 개막식 무대에 참여한 것 자체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형 ▶관련기사 27면

2024 01 22 ()

02

강원도민일보

2024 01 22 ()

03

도 정치권 “강원2024 성공, 도 위상 높아질 것” 축하 릴레이

개회식 참석 등 선수단 응원 ‘붐블’
민주 허영·송기현, 최 전지사 불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이자 아시아권 최초로 열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 도내 여야 정치권은 “두번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강원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일제히 축하했다.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과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지난 19일 대회 개최 당일, 강릉에서 열린 개회식 리셉션에 이어 개회식에 참석했다. 특히, 권 의원은 SNS를 통해

강원2024 실시간 중계방송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올렸다. 권 의원은 “청소년올림픽은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축제이기도 하다”며 “여러 나라에서 방문한 선수들이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대회 유니폼을 입고 평창돔에서 이원으로 동시에 열린 개회식 자리를 지켰다. 개회식에 앞서서는 평창군 여학생 댄스공연팀을 만나 격려했고, 이어 평창군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대회 현장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세계 각지에서 강원을 찾아주신 해외 선수단 및 방문객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올림픽 개최 지역구 의원 외에도 허영(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간)·노용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간 당협위원장) 의원은 SNS를 통해 대회 개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송기현 의원과 유치 주역인 최문순 전지사는 조직위로부터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아 관심을 끌었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4 01 22 ()

04

“기록경쟁 아닌 우정 쌓는 대회, 축제처럼 즐겨주길”

단독 인터뷰 | 김연아 홍보대사

평창대회 이어 홍보대사 활동
“더 큰 선수로 성장, 좋은 기회”
28일 평창서 토크콘서트 참석



‘피겨 여왕’ 김연아(사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연아는 2018평창올림픽 유치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8평창올림픽 홍보대사에 이어 강원2024 홍보대사로 다시 활동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당시 성화 마지막 주자로 개회식을 장식한 김연아는 강원2024봄얼활동에 적극 나서며 대회 성공 개최 전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강원2024가 지난 19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개회식에 앞서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리셉션에도 김연아 홍보대사가 참석했다.

김연아는 이날 리셉션장에 등장하자마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장관 등 주요인사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쇄도했다.

또, 김연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이희범 전 조직위원장과도 리셉션장에서 조우했다.

김연아는 이날 현장에서 “2018평창올림픽 이후 6년 만에 강원2024가 개막하는데, 소감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6년이 훌쩍 지나갔다”고 했다.

강원2024 의미에 대해선 “강원2024는 기록경쟁 경기가 아니다. 청소년올림픽 선수들이 우정을 쌓고 함께 즐기는 대회”라며 “각 국가 선수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축제처럼 즐겼으면 좋겠다. 청소년올림픽 선수들을 힘껏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선수들이 다양한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연아는 오는 28일 평창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

김연아·윤성빈 강원2024 홍보대사와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이 참석, 같은 청소년기를 거친 올림픽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격려를 전할 예정이다. 박지은 pje@kado.net

2024 01 22 ()

강원도민일보

15

강릉시민·관광객 어울려 올림픽 분위기 만끽



올림픽파크 내 상설 무대공연 “음식·스포츠 체험부스 인상적”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대회 첫 주말 강릉지역 도심과 올림픽 경기장 주변 등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2024 강원대회가 개막 첫 주말(20~21일) 눈과 비가 내렸다 그쳤다가 반복하는 곳엔 날씨임에도 강릉 올림픽파크 일대에 마련된 플레이윈터존에서는 외국인들과 강릉시민,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겨울스포츠와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외국인 등 방문객들은 삼성 갤럭시 체험관과 공식 굿즈샵 등을 둘러보고, 올림픽 캐릭터인



강원2024대회 개막 첫 주말 강릉 올림픽파크 일대에 마련된 플레이윈터존에서는 외국인들과 시민,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겨울 스포츠와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몽초 대형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임시로 마련된 스케이트장과 바이애슬론 체험부스에서 겨울스포츠를 직접 경험하고, 화덕에 구운 가래떡과 달고나를 만들어 먹으며 즐거워했다.

달고나 만들기 체험과 가래떡 구이를 맞본 외국인 Pety(페티·스페인)

씨는 “떨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해 남편과 함께 개최지인 강릉을 오게 됐다”며 “플레이윈터 존에 있는 모든 부스를 방문했고, 특히 달고나 만들기 체험이 인상 깊고, 가래떡이 고소하니 너무 맛있었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 내에서는 합창과 댄스, 사물놀이 등 강릉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강릉 페스티벌 사이트 무대공연’이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 까지 상시 진행돼 올림픽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강릉 월화거리에서는 강원도민일보사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릉시가 후원한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세계 청소년과 함께! K-Dancing Festival’과 강원2024 봄업 및 기후변화위기 극복 캠페인이 진행, 강원2024 봄업을 고조시켰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20일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꿈의오케스트라 강릉’ 무대가 펼쳐져 대회를 기념했고,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바닷가 갤러리 전시장으로 변한 경포 해변 일대는 관광객들이 오가며 작품들을 감상했다. 이연재

2024 01 22 ()

강원도민일보

17

횡성서 올림픽 보고 ‘비보잉·VR 체험’ 즐긴다



횡성문화관광재단 행사 마련 인디밴드·퓨전국악 공연 등 내달 1일까지 웰리힐리파크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024강원대회 봄조성을 위한 특별문화예술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횡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20~21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이 열리는 둔내면 웰리힐리파크에서 ‘인디밴드 카키마젱’, 비보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일 둔내면 웰리힐리파크 특설무대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봄조성을 위한 특별문화예술공연을 선보였다.

잉크루클라이맥스’, ‘퓨전국악밴드 아이울’ 등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였다. 또 이날 공연

외에도 스피드 썰린지, 바이애슬론·컬링·아이스하키 VR,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관광객들

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특별 문화공연은 20~21일에 이어 23일, 24일, 25일, 27일, 28일, 31일, 2월 1일 총 9일간 웰리힐리파크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청소년 대상 올림픽인 만큼 비보잉, 밴드, 응원 공연 등 젊고 활기찬 장르의 퍼포먼스도 펼쳐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봄조성을 위해 마련했다”며 “경기에 참여하는 70여 개국 청소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올림픽의 해당 종목이 진행되는 일정에 맞춰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현철

“횡성서 풍성한 K-컬처 즐겨요”

GANGWON 2024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내달 1일까지 27개팀 공연
도내 예술인 특별 이벤트

【횡성】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풍성한 공연과 이벤트 등 K-컬처를 통해 하나가 된다.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등이 열리는 횡성 둔내 웰리힐리파크 야외무대에서는 대회 둘째 날인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하루 3팀씩 모두 27개팀이 공연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횡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재성)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4동계청소년



◇지난 20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횡성 웰리힐리파크 리조트에서 관광객들이 컬링, 아이스하키 등 올림픽 종목을 체험하고 있다. 강원2024취재단=신세희기자

올림픽’ 4개 개최 도시 중 하나로, 성공 개최 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내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단체가 대회 기간 내내 다양하고 특별한 문화예술공연과 체험 이벤트를 벌인다.

비보잉, 밴드, 응원 공연 등

젊고 활기찬 장르의 퍼포먼스와 희망의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20일 ‘인디밴드 카키마젼’, ‘비보잉 크루 클라이맥스’, ‘퓨전 국악밴드 아울’이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공연과 함께 스피드 챌린지, 바이애슬

링·컬링·아이스하키 VR체험, 문화 체험 등도 마련됐다.

이재성 재단 대표는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70여개국 선수들이 특별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원2024취재단=유학렬기자

산림청 강원2024 성공 개최 지원 산불대응 강화

재난상황실 24시간 가동

【강릉】산림청(청장:남성현)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산불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와 산

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신속 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된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소각 등 위험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취약지 감시도 강화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국가 중요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인 만큼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원2024취재단=정익기기자

2024 01 22 ()

강원도민일보

05

폭설도 문제 없다...강릉·평창 제설작업 '완벽·신속'

주말 사이 지자체 중심 비상 대응
올림픽경기장 등 곳곳 밤샘 제설
통행 불편 해소 운영 지원 호평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주개최지인 강릉과 평창에 20~21일 강설이 이어진 가운데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설작업이 이뤄져 '동계스포츠 1번지'의 면모를 과시했다.

강원2024 개막 이후 강릉에 폭설이 내려 왕산면과 옥계면 일부 구간에 도로가 통제되고 있지만 빠른 제설작업으로 도로 대부분이 뚫려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릉지역에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며 대설주의보(중부산지 대설경보 20일 오후 1시)가 발효된 가운데 21일 오전 8시 기준 왕산면 44cm, 옥계면 백봉령 40cm, 성산면 26.9cm, 강릉평지 10.2cm의 폭설이 내렸다. 지난 18일부터 비와 눈이 반복해서 내린 왕산면 안반데기와 옥계면



지난 20~21일 강릉 등 영동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강릉시가 제설장비 차량을 동원해 고1동 솔솔택시일대 도로 등 시내 곳곳의 제설작업을 21일 신속 완료했다.

백봉령 등 2곳은 21일 현재까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또 왕산면 샐터 휴게실~고단1리, 닭목골~고단2·3리와 성산면 망월이마을-암반옥제협장, 자포골 구간~산북중점 등 4곳은 마실버스 운행이 단축됐다. 폭설이 내리자 시는 25개 노선 304km에 대해 유니목 2대와 덤프트럭 44대, 페이로다 1대, 굴삭기 3

대, 소형트럭 4대 등 50여대의 제설장비를 투입, 밤새 시내 곳곳의 제설작업을 벌였다. 제설제인 소금 700t과 염화칼슘 135t도 뿌려 강설에 따른 차량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열리는 오반 등 경기장을 비롯해 강릉원주대 선수촌, 메인프레스센터 등 도로 곳곳에도

제설작업을 펼쳐 도로는 양호한 상태다. 강릉시민 김 모씨는 "폭설이 내린 도로에 눈이 가득할 거라 예상했는데 깔끔하게 뚫려 역시 제설의 달인 강릉시다"며 "올림픽 도시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20~21일 대관령면 일대에 폭설이 내리자 제설장비를 총동원, 완

벽한 제설작업으로 강원2024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호평받고 있다. 군은 20~21일 대설특보가 발령되고 대관령지역에 15.5cm(21일 오전 7시 기준)의 폭설이 내리자 강원2024대회 원활한 지원을 위한 군중합상황실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제설장비와 인력을 전진배치, 밤샘 제설작업을 펼쳤다. 이날 군은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제설제 3800여t과 모래 2500㎥를 제설대기소에 비치하고 군청 소유의 유니목 등과 제설덤프, 그레이더 등 임대장비 등 총 31대를 투입, 군도와 경기장 연결도로 112개 노선, 273km에 제설작업을 펼쳤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도심지에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려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도로 결빙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올림픽기간에 눈으로 인한 도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대회 관계자와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대회를 치르고 관람할 수 있도록 도로 결빙 및 위험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 원활한 경기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태·홍성배

2024 01 22 ()

강원도민일보

05

개막식 이원중계방송 허술...평창지역 주민 허탈

평창 개회식 미중계 녹화 화면 사용
"조직위 약속 어겨" 지역사회 반발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지난 19일 오후 개회식을 갖고 본격 대회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평창돔에서 열린 개회식이 당초 조직위가 밝혔던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이원중계방송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2024대회 조직위는 이번 대회 개회식장소문제로 평창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022년 12월 대회 개회식을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지난 19일 오후 평창돔에서 열린 강원2024 개회식이 당초 조직위가 밝혔던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이원 중계방송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반발하고 있다. 개회식이 열린 평창돔 관람석이 텅 비어있다.

이원 중계방송하겠다는 안을 제시,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개회식에서

전국과 전세계로 중계된 방송에서 평창돔의 개회식 장면은 방송되지 않은 채 사전 녹화된 일부 장면만이 방송화면

우측에 미니화면으로 방송됐다. 실제 평창돔의 개회식이 방송되지 않은 것은 조직위와 주관방송사가 이원 중계방송의 어려움과 방송사고 우려에 대비해 사전 녹화화면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평창돔에서 사전 녹화한 화면 중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기 때문. 이로 인해 개회식 당시 평창돔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참석자들의 모습은 없고 사전 녹화된 성하 출발과 태극기 게양, 참석자들의 얼굴이 나가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특히 지난 17일 촬영한 사전 녹화를 위해 조직위가 평창군에 인원 동원을 요청했고 군은 평일로 일반주인 동원이 어렵자 군청 직원 300명을 참가시켜 이날 오후 군청의 일부 업무무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평창돔 개회식을 지켜본 주민들은 "강원2024조직위가 이원 중계방송

한다고 했던 약속을 저버렸다"며 "또한 이번 평창을 소외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정우 대관령면면영회장은 "당초 조직위가 주민들과 약속했던 이원중계방송이 아닌 사전 녹화화면을 사용해 다시 한번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지역을 소외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2024 조직위 관계자는 "주관방송사 측에서 이원 중계방송의 어려움을 제기해 사전 녹화화면을 사용했다"며 "대신 평창돔 개회식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이돌 그룹과 인기가 수 초창 공연을 충실히 해 참가 관객들에게 풍성한 관람거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평창돔 개회식은 사전 예약이 매진됐으나 참석 인원이 2000여명으로 절반에 불과, 2층 관람석은 대부분 비어 썰렁한 분위기로 관중 조수가 현실타로 나타났다. 신현태

16만명 찾아 지역 대표 축제 위상 재확인

이슈 현장 홍천강공공축제 성과와 과제

올해 1월5일 홍천강 둔치 일대에서 개장한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가 21일 폐장했다. 이번 축제기간 총 16만여명이 축제장을 방문하며 지역 대표 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동시에 향후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과제도 남겼다.

■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축제 방문객은 총 16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메인 프로그램 얼음낚시터를 비롯해 부교낚시터, 루어낚시터, 실내낚시터 등의 프로그램

은 주말의 경우 모두 매진됐으며 실내·외 음식점, 농특산물 판매장, 무대공연, 공공DJ, 사진인화 서비스, 초가집 풍경 포토존, 행운대박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다른 지역 겨울철 유사 축제의 차별화를 위해 6년근 인삼이 배합된 사료를 먹인 인삼 송어를 활용한 집과 홍천사량상품권과 농특산물상품권을 제공해 입장객들은 물론 지역산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얼음낚시터 등 프로그램 매진... 인삼 송어 활용 주목 기후변화 대비 다양한 행사 필요... 바가지요금 개선도

홍천강공공축제는 겨울철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대표 축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올해 홍천강공공축제는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영했으며 행사 개최로 지역 상인과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쁘다”고 전했다.

■ 축제 프로그램 다양화 절실 =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은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대비해 행사 개최 이전부터 얼

음낚시터와 다양한 낚시터를 준비하며 대응했다. 그러나 겨울축제의 중심이면서 메인 프로그램인 얼음낚시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축제가 개장한 이후 나흘이 지난 9일에서야 얼음낚시터가 개장했으며 행사 막바지 영상의 기운으로 지난 18일부터는 다시 얼음낚시터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기후에 영향받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 다양성 확대가 요구되고 있

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 일부 상인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발생한 점도 축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당 상인은 야시장 위탁업체를 통해 입점했으며 주최 측은 논란이 나온 이후 즉시 시정조치하고 입점업체들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또 다른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홍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후에 영향받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바가지 논란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hwy@

생태계 직접 영향 여부에 존폐 기로 달렸다

이슈 현장 영랑호수윗길 부교 철거 논란 재점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속초시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영랑호수윗길 부교 철거 논란이 환경영향조사가 끝나며 1년여 만에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호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용역을 수행한 강원대 산학협력단은 속초 영랑호 부교 설치에 따른 영향조사 연구 결과를 원고인 환경단체와 피고인 속초시, 그리고 담

당 재판부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재판부는 3월21일 제8차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다.

■ 영랑호수윗길 부교 =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낙후된 북부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6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길이 400m, 폭 2.5m로 영랑호를 가로지르고 있다. 부교 중심부에는 설악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름 30m 규모의 원형 광장도 갖

속초시·환경단체 소송중 조사연구 용역결과 나와 재판부 3월께 변론 재개 조사 기조로 존치 판단

다. 환경단체는 부교가 영랑호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2022년 4월 속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 = 영랑호에 설치된 부교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교의 철거 또는 존치를 결정할 만한 연구 결과를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해 냈을지는 미지수다. 석호의 수질환경과 생물 서식공간 변화는 단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전망 = 부교의 철거 또는 존치 여부는 용역 결과를 기초로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용역 결과가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에게 유리하게 나왔으면 철거에 무게가 실리고,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면 비용 편익에 따라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 환경단체와 피고인 속초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환경단체는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용역 결과를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초시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부교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선고든지 아니면 조정 이든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속초 = 권원근기자

2024 01 22 ()

강원도민일보

전국 노로바이러스 ‘비상’ 도내 환자 전년비 2배 꺾춤

09

올해 2주차 도내 29명 신고접수
올림픽 관계자 2명 확진 판정도
“손씻기·음식물 관리 예방 중요”

노로바이러스 유행이 계속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만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많은 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발표한 강원도 감염병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2024년 2주차(1월 7일~1월 13일) 기준 도내 5개 의료기관에 신고 접수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총 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노로바이러스 환자 14명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다.

노로 바이러스 유행은 비단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 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6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검사를 진행한 6명 중 경기심판자 2명이 노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도내 곳곳에서는 노로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A(46)씨는 “복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원을 찾은 뒤에야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춘천 소재 B내과의원 관계자는 “최근 구토,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며 “올해는 구토를 호소하는 영유아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와 음식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원섭 강원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강원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노로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다른 식중독이나 배탈과 증상이 똑같다 보니 증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도 최근 노로 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당초 설 연휴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지난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비상방역체계가 운영되면서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연락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정호

2024 01 22 ()

강원도민일보

원주 기업도시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운영

14

도교육청 섬강·샘마루초 신설
경동대 산학협력단 위탁 선정
3월부터 대기 수요 해소 기대

올해 원주 지정면 기업도시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이 신설, 돌봄 수요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간 지정면 기업도시 섬강초·샘마루초 돌봄 대기 학생들을 위한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전문 지식·경험을 보유한 대학 위탁으로 정규수업 후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교실은 총 6실,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교밖 공간을 임대·사용한다. 앞서 지역 대학인 경동대 산학협력단이 위·수탁 기관에 선정됐다.

기업도시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증

가로 현재의 초고 2곳만으로는 돌봄 수요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수많은 대기자가 발생하고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이 돌봄 공간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다.

도교육청은 기업도시 외 학교의 대기 수요는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오는 2027년 자연 해소되거나 교실 추가, 수용 인원 증원 등으로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기업도시 당장의 돌봄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다. 지난해 3월 기준 기업도시 돌봄 대기자는 원주 전체의 26.8%에 달하는 127명이었으며, 올해 역시 대기자가 124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마지막 신규 아파트 입주 시작되면 대기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기업도시 첫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 추후 혁신도시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4 01 22 ()

/ 23

비대면 진료 효율 높여야

-의료 취약지 주민 이용 부족, 해법 모색을

도서벽지 등 오지 환자들의 건강과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도시 지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행 의료기관이 도내 거점 도시에 몰려 있어 의료 취약 지역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대면 진료 본래의 취지가 빛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향후 이용 추이를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응급 의료 취약 지역도 초진할 수 있게 하는 등 진료 범위를 넓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 모두 응급 의료 취약 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는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

이용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상당수 주민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여, 제도 운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 약국 등이 춘천, 원주, 강릉에 몰려 있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급여 청구 기관을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는 의원 18곳, 약국 19곳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 의원 13곳, 약국 12곳이 춘천, 원주, 강릉 소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분야입니다. 세계 각국은 원격 의료 시장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산업적인 면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 도시 집중 현상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오진 가능성과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 등 해결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남용의 약품 처방 비중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들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 비대면 진료 제도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2 ()

/ 23

선수단과 방문객 만족도 높ی길

-청소년올림픽 기상악화 변수, 생활민원도 소홀함 없어야

눈, 눈비, 강한 눈보라 등과 같이 날씨가 수시로 급변하면서 지난 주말 20일과 21일 경기 일정이 일부 늦춰지거나 부대행사가 취소되는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파인스키 남자 슈퍼대회전 경기 시간이 늦춰졌으며, 야외에서 펼쳐는 설상 종목은 예정 일정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강릉하키센터 앞 외부 빙상장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쇼트트랙 최민정과 이준서 선수의 아이스워밍포인트 레슨이 취소됐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보라가 이는 등 기상 악화로 인해 현장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진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화 행사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기상청은 21일 오후 9시를 기해 개최지 횡성과 평장을 비롯해 원주·춘천 등 다수 강원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최지 강릉시 왕산지역은 1월 18일부터 쌓인 눈이 44cm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눈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겨울 기상 상황이 경기운영과 부대행사 개최에 돌발 변수가 될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대회 초반부터 닦친 상황이어서 피로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최지 4개 시군은 대회 전반적인

운영은 물론 주민 생활민원 양측 모두 원만하게 욕구를 해소해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없이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의 경우 추운 날씨로 인해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해야 합니다. 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편의를 도와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기상 악화로 인한 경기 일정 변경 사항은 즉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안내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매하고도 경기장을 찾지 않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설상 경기의 경우 예매권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빙상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중에 진행되는 경기 대다수에서 매진을 찾아볼 수 없어 우려를 더합니다. 관람이 불가능 경우는 즉시 반환 처리해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한편 대회 개최지 4개 시군은 많은 적설량 및 한파로 인해 주민 일상생활 및 사회복지 등 여러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때이므로 행정력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일상적인 생활 민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 01 22 ()

/ 19

청소년올림픽 응원, 지역 정치권 모처럼 한목소리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8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날 ‘올림픽 성공 개최, 특별자치도 도약 발판 삼는다’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유일한 메가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대회 개최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성공 개최를 위해 김진태 도정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안전 올림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민주당 도당도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올림픽은 6년 전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했다.

도당은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강원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이 정쟁과 비방이 아니라 서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랜만이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이번 올림픽은 1988서울하계올림픽,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국제 올림픽이다. 특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올림픽 최초로 아시아에서 개최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즉,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 처음 치르는 대회다. 국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평화의 성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역의 정치권이 이에 부응,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며 긍정적이다. 이를 계기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초월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체나, 아니면 새로운 도약이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결집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길 바란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명예스러운

이름을 걸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 질주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은 아직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 안보 최일선에 위치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온갖 규제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인구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해 안권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 장기화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고성군 지역경제 회생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능력을 보여줄 때 주민은 총선에서 표로 보답하게 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도당, 지원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약이나 정체나’ 갈림길

지역구 국회의원, 스스로 존재감 드러내야

江原日報

2024 01 22 ()

/ 19

강원수출 3년 연속 27억 달러 달성, 올해가 중요

강원수출이 3년 연속 3조6,000억원(27억 달러)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3년 12월 및 연간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도내 수출액은 27억1,293만 달러(환율 1,340,0원 기준 한화 3조6,353억원)로 집계됐다. 2022년에 비해 1.3% 감소했으나 글로벌 경기 위축, 국가 간 분쟁 등 어려운 대외 통상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27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역대 최대인 2억3,419만 달러(3,138억여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 한 해 동안 '강원수출 효자 품목'인 의료용전자기기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4억8,035만 달러(6,436억여원)를 달성하며 2014년 이후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의료기기 수출은 방역물품, 백신, 치료제 등 코로나 19 특수가 사라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강원 의료용전자기기 수출은 오히려 성장세를 지속했다.

강원수출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올해가 중요하다. 현재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발 위기 심화로 국제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직격탄이다. 올해 예정된 세계 70개국 이상의 선거는

국제 무역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변수다. 격동기를 잘 헤쳐 나가지 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물가가 연속해서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집값 상승, 가계 부채, 30·40대 고용 부진 등 서민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들은 여전하다.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유망 수출품목 발굴, 육성 등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수출의 선전은 반가운 일이다. 수출 호조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온기가 골고루 감돌도록 불을 더 지펴야 한다.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재정 효과 등이 반영되면 경기가 예상보다 일찍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올해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는 수출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도내 기업들과 지자체도 안주하지 말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 인팍에 도사린 위험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이 활기를 띠면 답답했던 지역경제의 돌과구가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강원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와 주기를 바란다.